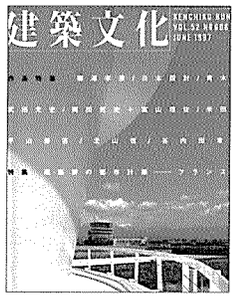
건축문화
a+u
신건축
Domus
Architecture
Architectural Record

건축문화

97년 6월호



이번호에서는 작품특집으로 야나기사와 다까히꼬와 TAK 건축 · 도시계획연구소의 동경 신국립극장과, 다께다 코지의 이즈미 후레아이센터(Village Center), 일본설계의 센조꾸 학원 부속 유치원 등이 실렸으며, 특집으로는 '건축가의 도시계획 - 프랑스편'이 소개되었다.

■ 특집

건축가의 도시계획 - 프랑스편

프랑스의 건축가에 의한 도시계획이 Manuel Tardits와 Sylvie Brosseau의 글로 소개되고 있다. 프랑스의 도시계획은 합리주의적 접근으로 특징지워진다. 과거와의 단절을 선호했던 여타의 유럽국가들과는 달리 우리는 훌륭한 공간의 위계와 건축의 지역적 전통에 대한 존중을 발견할 수가 있다. 많은 수의 사람들에게 공급할 것을 전제로 한 전후 세대의 공동 주택계획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가하고 있다.

이들 프로젝트들은 도시와 극단적인 대치상황에 놓여있는 것이다. 프랑스는 집합주택과 스포츠 리조트의 프로젝트에 있어서 수요에 대한 양적평가를 가하는 일반적인 기술적 해결방안에서 보면 예외적인 상황이다.

70년대에 들어서는 건축물을 정렬하는 방식보다는 도시의 공간을 구성해 가기를 원하는 새로운 세대의 건축가들이 나타나게 된다. 동시에 디자인 코드에 의해 작업하는 건축가들의 팀에 의해 도시의 구획이 구성되어지는 것을 볼 수있다. 마지막으로 Rem Koolhaas의 Euralille 프로젝트에 관한 긍정적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문의 구성은 서장 : 프랑스의 어번프로젝트, 1장 : 합리주의적 도시, 2장 : 메가스트럭쳐에서 모뉴먼트 건축으로-가로의 부활, 3장 : 유기적 도시, 4장 : 도시건축-街區로의 회귀, 5장 : '세기말'적 전망으로 이루어져 있다.

■ 작품특집

▶동경 신국립극장(야나기사와 다까히꼬 TAK 건축 · 도시계획연구소 설계)

'신건축'에서도 소개되고 있는 이 건물은 오페라하우스, 콘서트홀, 극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좌석과 무대에 있어서 가변성을 지닌 이 세 개의 극장이 하나의 공간 안에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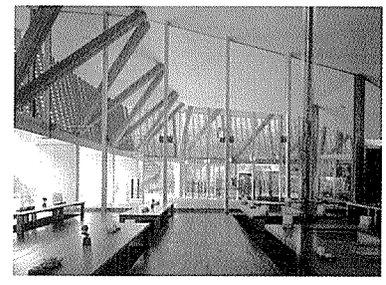
▶센조꾸 학원 부속 유치원(일본 설계)

일본에서 유치원은 학교교육법상의 학교이나 교육내용과 방법은 각 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크게 '일제 보육'과 '자유 보육'으로 구별되는 가운데 센조꾸 학원의 전통은 후자에 속했다. '자유 보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각 처에서 자유롭게 놀이에 열중하고 있는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교사가 정원과 교실의 아이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건물은 정원을 둘러싸는 곡선형을 이루며, 정원과 교실은 이 둘 사이에 복도없이 직접 연결되어 있다. 대신 각 교실을 이어주는 복도는 메자닌으로 되어 있어 교사는 아이들이 어느곳에 있어도 쉽게 관찰할 수 있어 안전의 사각지대를 갖지 않도록 되어 있다.

▶이즈미 후레아이센터(다께다 코지 설계)

마을 회관인 이 작품에서 작가는 '마을의 얼굴' 만들기에 힘을 기울였다. 장래 마을의 주요 산업의 테마를 제기하는 것을 목표로 작가는 '茶'를 그 테마로 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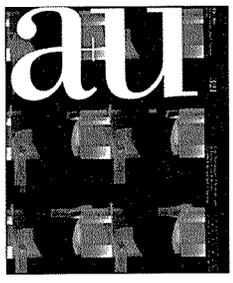


▶ Green-Wall (Architecton 설계)

4인 가족과 母堂을 위한 2세대 주거에 준하는 주택이다. 'ㄷ' 자형의 평면을 갖고 둘러싸여진 외부 공간에 데크를 설치하여 프라이빗과 퍼블릭으로 나뉘어진 2개의 동을 연결하고 있다. 가로를 면한 녹색의 벽을 작가는 자연과 시간의 에코를 발생시키는 반사판으로 설명하고 있다.

a+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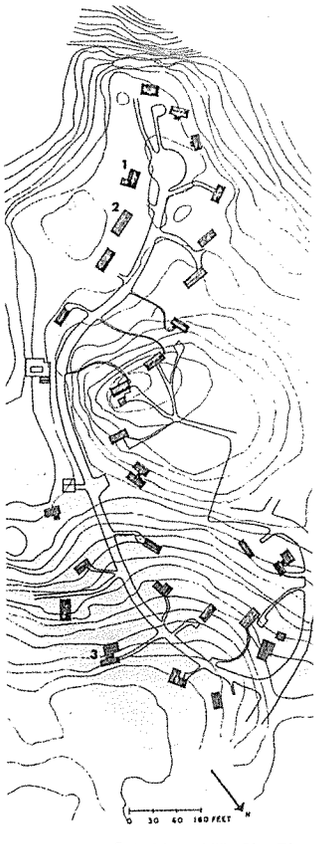
97년 6월호



이번호에 소개된 작가들은 C. de - Prtzampa-rc, Williams and B. Tsien, G. - Lynn, W. - Bruder와 J. Cutler, E. Becket and M. Yazdani이다. 연재물로는 '전후의 현대주택' 제3회가 실렸으며 기사로는 MOMA증 · 개축 설계경기의 지명 건축가 발표에 관한 내용이 소개되었다.

■연재

전후의 현대주택 제3회 - Six Moon Hill의 유토피아 건축, The Fletcher House



「Six Moon Hill」 Site Plan

2차대전 직후인 1945년 월터 그로피우스와 젊은 건축가들이 미국 메사추세스주에 설립한 사무소인 TAC는 뉴딜정책과 함께 '도시건축의 문제'로 떠오른 전후의 주택문제 해결책을 모색함과 동시에 그들 자신의 주택들을 만들게 된다. 그로피우스와 함께 참여한 7인의 건축가들은 메사추세스주 렉싱톤에 20에이커의 부지를 설정하고 그들의 커뮤니티를 형성한다. 자연에 둘러쌓여진 경관 뿐아니라 당시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켐브리지에 15분, 보스턴에 30분이라는 활동적인 '움직이는 장'으로서 부지를 설정하게 되었다. 1966년 노먼 플래쳐는 이렇게 말했다.

"판에 박힌 관계를 극복하는 커뮤니티를 만들겠다는 느낌을 모두 갖고 있었으며, 협력의 원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상적인 커뮤니티는 사회의 혼란에 대항하는 커다란 효과를 갖는다는 TAC의 강한 신념이 거기에 존재하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TAC의 소멸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데올로기는 그들의 주거 커뮤니티에 살아있다.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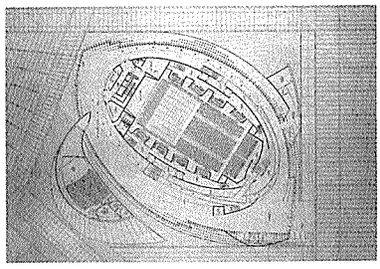
새로운 뉴욕 근대미술관을 향하여 - MoMA증 · 개축설계경기 최종선고의 지명건축가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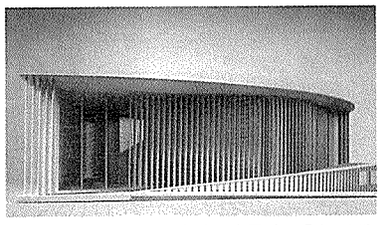
MoMA의 건축가 선별 위원회의 의장인 Sid R. Bass는 설계경기의 지명건축가로 Jacques Herzog and Pierre de Meuron(Basel), 타니구찌 요시오(동경), 그리고 Bernard Tschumi(New York)를 발표했다. 이들은 세계각국에서 지명된 10개의 설계사무소중에서 설계의 최종단계에 참가할 수 있도록 결정되었다. 처음에 참가한 10인의 건축가의 스케치전이 5월 3일에서 7월 8일까지 뉴욕 근대미술관 필립존슨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

■작품

▶Christian de Portzamparc

룩셈부르크의 필 하모닉 콘서트 홀(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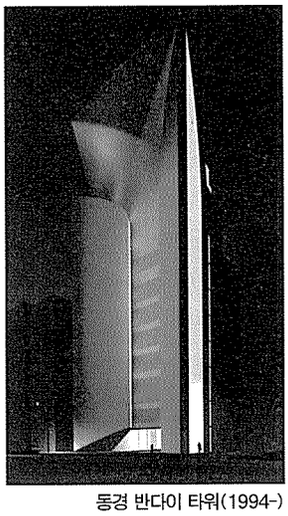


룩셈부르크 필 하모닉 콘써트 홀(1997)

이 콘서트홀은 리카르도 보필에 의해 디자인된 도시지역의 중심에 위치하여 일종의 보석 내지는 세례당의 메타포로서 계획되어 있다.

홀로의 도입은 그 들어서는 행위가 특별한 물리적 체험이 됨으로써 시각적으로 감각적인 경계를 경과한 것을 확인시키도록 되어 있다. 홀의 갤러리를 통과할 때 음악적인 체험이 가능하도록 장면의 전개, 움직임, 변화의 연속이 리듬이 풍부한 장면을 연출한다. 이러한 감각적인 연속된 움직임을 통해 건축과 음악의 합체를 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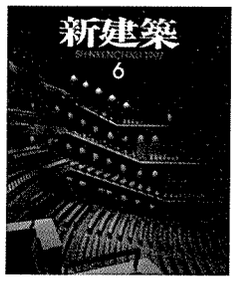
이 외에 LVHM 타워(1995-1997, 미국 뉴욕)와 반다이 타워(1994-, 일본 동경) 두 개의 타워프로젝트가 소개되었다.



동경 반다이 타워(1994-)

신건축

97년 6월호



이번호에서 작품으로는 신국립극장(야나기사와 다까히꼬+TAK), 아즈미노의 치히로 미술관(마이토 히로시), 川/Filter(쿠마 겐꼬), 후꾸오까대학 A동(스튜디오 건축계획), Cube-白石市 문화체육활동 센터(호리이까 히데토) 등이 소개되었으며, 특별기사로는 '막구조와 대가구 공간'이 실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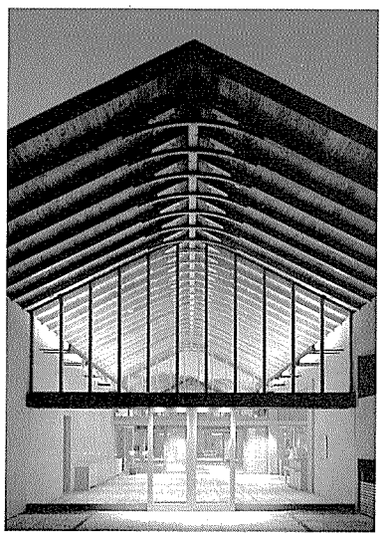
■ 작품

▶치히로 미술관-아즈미노(나이토 히로시 설계)

아즈미노 치히로 공원에 위치한 이 미술관은 공원의 설계와 동시에 설계가 행해졌다.

작가는 도서관과 미술관의 중간에 위치하는 건물을 제안하였고 환경과의 일체감을 갖게 하는데 주목하였다.

내부가 목조로 된 천정의 디자인은 20종 이상의 형태를 시험해 본 결과이며 중앙의 중정은 광활한 주위 환경에 대해 구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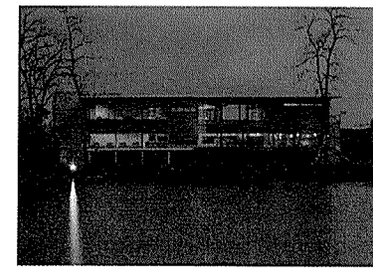
적인 기능을 갖도록 했으며 이 중정을 통해 미술관 안의 다양한 활동들이 시각적으로 관찰될 수 있도록 하였다.

▶川/FILTER(쿠마 겐꼬 설계)

부지의 한편으로는 阿武常川의 명승지에 면해 있으며 다른 한편은 福島공항과 須賀川市를 잇는 바이패스에 면해 있다. 한편으로는 현대적이며 무성격한 '교통'이 존재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자연의 특이점이 존재하는 것이다.

부지는 그 양자의 우연한 만남의 지점에 위치한다. 프로그램 상에서도 두 개의 대립되는 요소가 발견되는데, 하나는 현대 최신기술의 설비를 갖춘 공장이며, 하나는 직접 수작업이 행해지는 취사시설과 식당이다. 이는 또하나의 '교통'과 '자연'으로 작가는 해석하고 각각을 그에 대응하는 교통과 자연에 인접시켜 배치하였다.

강을 면한 쪽의 목재의 루버는 주체의 이동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 장치로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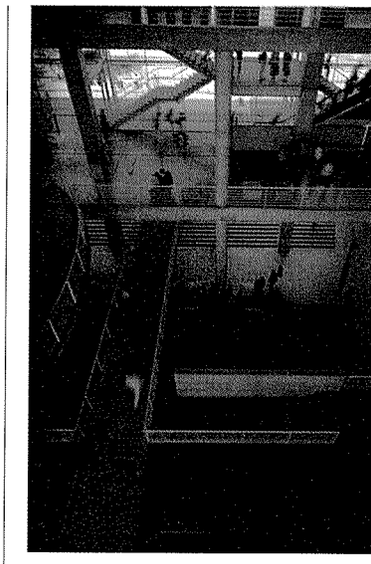
▶후꾸오까대학 A동(스튜디오 건축계획 설계)

후미히꼬 마끼도 참여하여 이미 소개된 바 있는 후꾸오까대학의 새로운 캠퍼스 조성 계획 중의 하나로 이루어진 건물이다.

이 건물은 길이나 광장으로 질서잡혀 차례차례로 연속되어나가는 도시공간에 근접한 구성을 지니고 있다.

길에 해당하는 반외부의 서큘레이션 스페이스가 개별의 블럭들을 연결하며, 6층 높이의 반외부의 비워진 공간이 광장을 형성한다.

작가는 건물내외의 공간이 일체가 되어 사람들의 만남을 위한 장, 입체적인 커뮤



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 특별기사

'막구조와 大架構 공간' - 세계의 막구조의 계보(石井一夫)

먼저 저자는 로마의 판테온으로부터 근대의 대공간 가구로의 전개를 설명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대공간계보에 이어 일본에서의 대공간 계보를 소개하면서 돔구조의 다양한 발전사를 소개하고 있다.

■ 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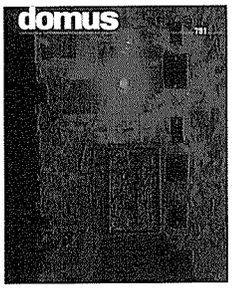
TOKIO계획 1997 - PROJECT - 06, Waterfront Residence

도시와 바다가 만나는 경계선상에 만들어지는 이 주거는 도시생활과 바다와의 새로운 만남을 만들어 낸다.

바다의 인프라스트럭쳐와 주거의 혼합은 도시생활과 자연의 새로운 관계를 생성해 낸다.

Domus

97년 3월호



중심과 주변의 이분법적 사고가 현실적으로 의미를 잃어가는 상황은 건축에도 나타나고 있으며, 그를 대표할 수 있는 예들이 본지 3월호에 제시되어 있다. 또한 빠른 속도를 선호하는 문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제4차 Doors of Perception 회의 내용을 수록하였다.

■ 탈 중심과 일반화

내부와 외부, 사랑과 증오, 긍정과 부정 등 우리의 사고는 이분법 체계에 의해 강하게 지배받고 있으며, 이는 도시에 있어서 중심부와 교외라는 구분으로 적용된다.

도시 중심부가 고도로 집적된 행위들이 역동적으로 일어나며 여러 방향성의 출발점이면, 그 교외는 불연속적이고 불균질한 구조들이 산재한 주변적인 곳으로 그 중요성이 덜하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Rem Koolhaas가 '일반화된 도시'에서 언급하듯, 이러한 엄격한 구분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으며 그에 따라 특정한 장소성이 갖는 의미도 약화되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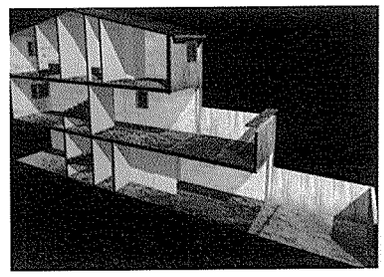
이제 도시계획에서는 전통적으로 중요시했던 이상들을 더 이상 견지할 수가 없으며, 일반성과 반복성 등 현실적인 가치들이 자리매김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소개된 작품들은 중심과 주변이라는 이분법의 틀을 깨면서 문제의 해결안을 동떨어진 이상이 아니라 현실에서 찾아가는 계획의 예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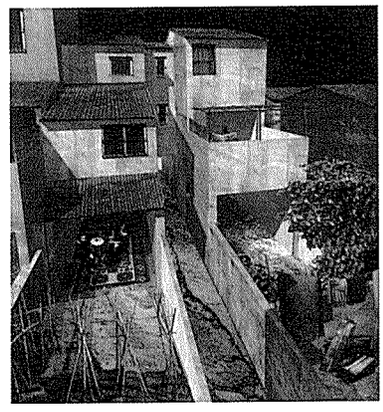
▶Maurice Nio의 네덜란드 트웬테 하수처리장

과거의 유산을 볼 수 있는 박물관이 우리 시대의 교회당이라고 한다면, 현대의 폐기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오물처리장이 미래의 교회당이 될 것이다.

현재 도시의 외곽에 위치한 이러한 시설물들은 미래에는 도시의 중심 영역에 위치하게 될 것이며, Nio의 작품은 그 모습을 암시해 주고 있다.

▶Le K architectures의 프랑스 오버빌리에 도시계획





실업률이 높고 갖은 기능들이 마비 상태에 있는 파리의 한 교외 도시에 대한 설계 경기에서 당선된 Le K architectures의 안은, 일반적이고 현실적인 바탕에서 해결안을 찾아나간 뒤 이를 그 도시라는 특수한 환경에 적용시킨 것이다.

중심화되고 정리된 기타 도시계획과는 달리, Matrices Pavilionaire와 Hangars Verticaux로 구성된 이들의 안은 계속하여 저소득층으로 남을 시민들의 현실을 고려하여 가변적이고 중성적이며, 기존의 도시 조직에 기생하면서 궁극적으로 독자적인 조직을 형성해가도록 계획되었다.

그 외에 ▶고속도로 교량 밑이라는 버려진 공간에 역동성을 상징하는 형태의 건물을 삽입한 Odile Decq, Benoît Cornette의 낭테레 고속도로 통제소, ▶João Alvaro Rocha, José Manuel Gigante의 포르투갈 통신소 ▶도시성과 교외적인 프라이버시가 동시에 요구되는 사이트에 건설된 Marianne Burkhalter, Christian Sumi의 스위스 라우펜부르그 아파트 단지 ▶Adolf Krischanitz의 오스트리아 부르겐란트 주거 ▶Anne Lacaton, Jean Philippe Vassal의 프랑스 보르도 플로아락 라타피 주택 ▶Bolles+Wilson, Hans Hollein의 조명제품전시관 설계 등이 소개되어 있다.

■ Doors of Perception 4차 회의

네덜란드 디자인 협회에 의해 조직된 모임으로, 현대 문화를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는 Doors of Perception의 4차 회의가 1996년 11월 암스테르담에서 열렸었다.

금번 회의는 '속도'라는 일반 명사를 중심으로, 철학, 생물학, 사회 과학, 산업, 디자인, 건축, 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의견을 교환하였다.

교통수단, 정보매체 등의 발달에 의해 현대는 그 일상 삶까지도 전례없는 속도의 시대를 맞고 있다. 그러나 빠르다라는 개념이 발전과 반드시 상응하는가, 속도가 지배하는 문화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느림은 현대성과 대립되는가 등 근본적인 문제들은 간과되어 왔다.

빠른 속도의 개발은 자원의 고갈과 함께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으며, 제작 공정, 이동, 통신에서 속도에 의해 절약된 시간은 삶을 풍부하게 하는데 쓰여지기 보다는 새로운 상품을 소비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등 그 부정적인 면들이 다수 지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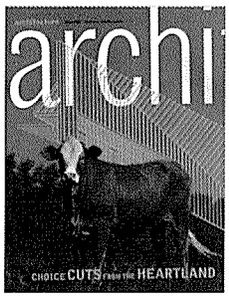
■ 기타

▶Rem Koolhaas의 글 '일반화된 도시' ▶디자인계의 대부라고 불리우는 Enzo Mari와의 인터뷰 ▶스위치, 플러그 디자인 ▶제23회 상파울로 국제 비엔날레 ▶Jasper Johns의 작품 세계 ▶근대 건축의 대표적 인물 중 하나인 Victor Bourgeois와 벨기에 브러셀에 있는 그의 대표작들 ▶소호 지역에서 첼

시 지역으로 그 중심지를 옮겨가는 미국 미술계의 현황 ▶새로나온 화장실 설비 부품 등을 다루고 있다.

Architecture

97년 5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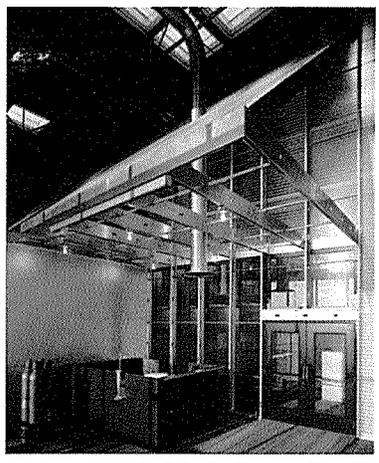
5월호는 미국 중서부 지역의 건축을 주제로 다양한 건축 경향을 소개하고 있으며, 아울러 AIA 건축상의 문제점, 건축설계사무소 확장 운영법 제안, 컴퓨터 프리젠테이션의 문제점 등을 다루고 있다.

■ 미국 중서부의 건축

목재 재료의 사용, 옛 구조체의 이용, 산업 이미지의 보존 등 미국 중서부 지역의 신작들에서 드러나는 새로운 작품 경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인근 창고 건물들에서 모티브를 얻은 Bravura의 캔터키 주 루이스빌 발레 센터 ▶옛 목장 구조를 도입한 Abend Singleton Associates의 캔서스 주 토페카 역사연구회관 ▶각종 설비들을 노출시킨 Herbert Lewis Kruse Blunck의 아이오와 주 안케니 창고형 사무실 계획 ▶지역 전통의 재료와 현대적인 형태 및 구조를 조화시키면서 북유럽적 근원을 연상시키는 David Salmela의 미네소타 주 산림지역 통나무 주택 증축안 ▶ 그 밖에 Loom의 미네소타 주 미네아폴리스 녹스 공원 계획, Randy Brown Architect의 네브라스카 주 오마하 사무실 계획, BNIM Architects의 미조리 주 캔서스 시티 교육 회관 등이 소개되었다.

■ 뉴욕 현대미술관(MoMA) 증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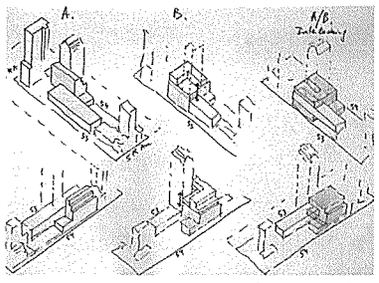


아이오와 주 안케니 창고형 사무실 계획

Philip Goodwin과 Edward Durrell Stone에 의해 설계된 미술관 건물의 인근 대지를 매입한 MoMA는 10명의 건축가에게 그 증축안 아이디어를 공모하였다.

Williams and Tsien, Rafael Vi ñ oly, Steven Holl, Wiel Arets, Rem Koolhaas, Toyo Ito, Dominique Perrault의 안을 제치고 최종 설계단계에 진출한 것은 Bernard Tschumi, Herzog & De Meuron, Yoshio Taniguchi였다.

그러나 이들 안은 하나같이 기하학적인 박스형 건축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드러낸다.



Bernard Tschumi의 MoMA 증축안

■ AIA 건축상에 대하여 - 과연 최고의 건축물들에게 수여되는가

AIA에서 해마다 수여하는 건축상은 뛰어난 디자인을 시상한다는 것 이외에도, 건축이라는 분야를 일반인들에게 널리 인식시킨다는 사회적 목적을 띠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적인 아방가르드 작품보다는 평범한 주류작품들이 뽑히기 마련이다. 건축계의 오스카상을 지향하는 AIA 건축상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시상을 다층화하는 등 개선책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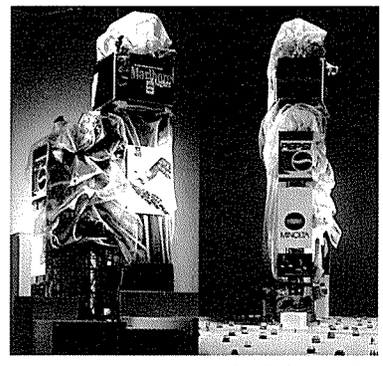
■ 건축사무소의 확장 문제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다보면 사업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온다. 그러나 80년대 경기 호세를 타고 확장했다가 90년대 들어 큰 타격을 입은 많은 사무소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확장이라고 무조건 발전적인 것은 아니다.

특히 작업 환경이 바뀌면서, 사무원당 투자비용도 크게 증가하였다. 규모를 확장하고자 할 때 확인해 볼 사항과, 확장된 사무소의 운영방법에 대한 제안이 실려 있다.

■ 기타

▶Maxwell MacKenzie의 전원건축 사진기행 ▶재개발 계획과 함께 뉴욕 도시계획의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뉴욕의 인근 섬들 ▶1997년도 AIA/BIA 벽돌 건축상 수상작 소개 ▶근대의 상징인 커튼월을 제거하고 반투명의 메탈메시로 '포장'될 Frank O. Gehry의 뉴욕 타임즈 스퀘어 고층건물 재개발 ▶올해 프리츠커상 수상자인 Sverre Fehn ▶시에틀 대학의 Steven Holl 교회 ▶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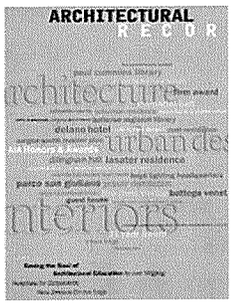
Frank O. Gehry의 뉴욕타임즈 스퀘어 고층건물 재개발

국 건축의 가벼움, 미국 문화의 환영성을 고발한 Ada Louise Huxtable의 저서 '비현실적인 미국 : 건축과 환영'에 대한 소개와 그 비판 ▶미국 미조리 주 캔서스 시티의 재활성화 계획 ▶본격적인 건축박물관을 준비중인 건축가이자 전통 보존주의자인 Phyllis Lambert과의 인터뷰 ▶커튼월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실리콘 방수제의 디테일 ▶건축주에 대한 컴퓨터

프리센테이션의 합리성 문제 ▶새로나온 각종 마감 재료 등을 다루고 있다.

Architectural Record

97년 5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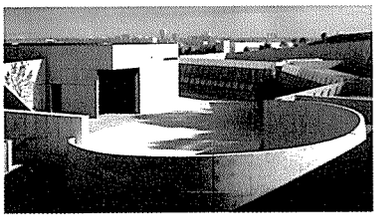
1997년도 AIA 건축상 시상 결과를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5월호는 그 이외에도 뉴올리언즈 시의 공동화 문제, 현대 건축교육계의 앞길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기능에 따른 건축물 분석의 연속 기획으로 의료시설을 다루고 있다.

■ 1997년도 AIA 건축상

'올해는 엘리트적이지 않고 사회성, 공공성에 비중을 둔 작품들을 선정한다' 는 새로운 심사 기준을 통해 선별되었다. 그러나 시상의 의미가 희석화되고 있고, 너무나 건축계 내부의 기준이 적용된다는 비판은 여전히 등장하였다.

본 호에서는 건축, 건축설계사무소, 인테리어, 도시계획, 25주년 부문으로 나누어져 시상된 올해의 작품들과 그 건축가를 소개하고 있다.

▶건축부문 - Venturi, Scott Brown의 하버드대 기념관, Williams and Tsien의 캘리포니아 뉴로사이언스 협회, Steven Erhlich의 캘리포니아 Paul Cummins 도서관, David Baker의 캘리포니아 맨빌 홀 학생 아파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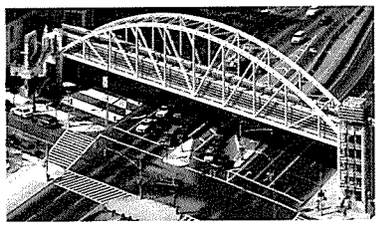


캘리포니아 뉴로사이언스 협회(Williams and Tsien 설계)

▶인테리어부문 - Brayton & Hughes Design Studio의 캘리포니아 보이드 조명사, Phillipe Starck의 플로리다 델라노 호텔, Hardy Holzman Pfeiffer의 하와이 딜링험 홀, Rafael Vinoly의 동경 국제 포럼 등

▶도시계획 - Comunitas Architecture의 이탈리아 베니스 산 줄리아노 공원 계획, SOM의 베트남 호치민 시 사이공 남부 도시계획, SOM의 뉴욕 트리베카교 등

하와이 딜링험 홀(Hardy holzman Pteiffer 설계)



뉴욕 트리베카교(SOM 설계)

▶건축 설계사무소 부문 - R.M. Kliment and Frances Halsband, Architects

▶25주년부문 - Louis I. Kahn의 뉴 햄셔 엑시터대학 도서관

■ 버려지는 미국 뉴올리언즈 시

뉴올리언즈는 역사적, 건축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 도시였으나, 시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을 찾아 교외로 이동하면서 점점 더 공동화 되어가고 있다.

한때 역사적 유산으로 여겨졌던 건물들은 현대적 삶에 부적합하다고 판명됨으로써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다. 여기에 버려진 건물들을 박물관 등으로 재개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으나, 각종 직장과 산업을 부흥시키지 않고는 옛 도시의 활력을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뉴올리언즈의 사회적, 경제적 문제 앞에 건축은 한정적인 해결안만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 건축교육

건축계를 비롯한 사회 전반의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축 교육은 과거의 커리큘럼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한 듯하다.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건축가를 배출시키기 위해서는, 첫째로 컴퓨터를 장려하여 각종 문화와 시각들에 접촉할 기회를 제공하고, 둘째로 인종차별적인 정책을 철폐해야 하며, 셋째로 교육의 질 자체에 완벽성을 추구하고, 넷째로 지식을 현실 삶과 연결시키고 사회적인 문제들을 스튜디오 작업에 도입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 연속기획 - 의료시설 건축

병원 건축은 90년대 초에 비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으나, 근린의료원, 특수분야 전문병원, 장기 치료의료원 등 그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건축가들은 운영 직원들의 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 건축 계획을 제시함으로써, 건축주들에게 건축 비용에 좀더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많은 창의성을 발휘하고 있다.

미래의 의료시설 건축은 점차 소규모화 되고, 근린지역중심의, 노인층을 위한 병원으로 전환되어 갈 것으로 예측된다.

그 대표적인 예들로 ▶미국 매서추세츠 보스턴의 샤피로 의료원 ▶커네티컷 샤론 병원 ▶팬실베니아 알투나 병원 ▶캘리포니아 버클리 알타 베이츠 암센터가 소개되어 있다.

■ 기타

▶건축 전문 사진가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Ezra Stoller의 작품 세계 ▶내화에 대한 새로운 법률과 재료들 ▶곧 발매될 AutoCAD 14의 성능 등을 다루고 있다.

〈번역 : 최원준, 강상훈〉